

北미사일 대비 美 MD실험 6년만에 성공

지난 10년 동안 8번 중 3번 성공... '신뢰도 논란'

지상요격미사일, 美서해안 추가 배치 여부 주목

미국이 북한 등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22일(현지시간) 실시한 미사일 방어(MD) 요격실험이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뢰도 논란에 휩싸인 미국 MD의 핵심체계인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의 서해안 추가 배치계획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보잉사 주관으로 GBI 시뮬레이션 실험을 시행해 대평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요격실험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MD시스템을 설치하고 8차례에 걸쳐 요격실험을 했으나 단 세차례만 성공해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번 실험은 GBI가 요격체를 요격지점 부근까지 운반한 뒤 요격체가 분리되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사일 방어체제

Missile Defense(MD).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실험에 쓰인 요격체(킬 비클)는 레이서 인사가 만든 EKV CE-2 버전으로, 2010년 실시된 두차례 실험 때는 모두 실패했다.

실험에 적용된 가상적 상황은 태평양 마셜제도 서쪽에 있는 과절련환초에서 발사된 중장거리 미사일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탐지해 GBI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번 실험 성공에 대해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제임스 시링(해군중장) 국장은 "요격실험 성공은 우리의 본토방어 미사일 방어체제의 신뢰도를 증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결음이 됐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 방어 옹호 연대 설립자인 리



키 엘리슨은 "이번 성공은 미국 MD의 신뢰도를 확인해주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요격실험 성공으로 GBI 추가배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 이외에 추가로 14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3월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톰 콜리나는 이달초 미국 군축·비확산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CE-2는 지금까지 두차례 요격실험을 실시해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에 성공하더라도 3번 가운데 한번만 성공한 셈이 된다"고 지적하고 "아구에서는 3할3푼3리 가 대단한 성적이지만 미사일 방어에 부적합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시진핑 주석 1인 권력 체제 점진적 강화... 7개 요직 독식

2개월 내 문화소조장 겸임

정치·경제·사회·문화 지배

경제권력까지 장악하며 1인 지배체제 구축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집중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의 한 고위 인사는 시 주석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당의 최고 핵심 조직의 조장직 1~2개를 더 겸임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訊)이 23일 보도했다.

정치·경제 전문가로 작년 말 제18기 3중전회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류(劉) 모씨는 시 주석이 고강도 개혁의 추진력을 위해 일부 분야의 사령탑직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보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정가의 일각에선 시 주석이 신설되는 '문화영도소조'(이하 문화소조)의 조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화소조의 신설과 인선은 이른바 앞으로 2개월 내에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시 주석은 정치·경제·사회 영역 외에 문화 부문 개혁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문화 부문에 대해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모씨는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체계 개편에 나선 증거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시 주석 체제 출범 후 제2의 개혁에 나섰으나 지난 30여년간의 모순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져 집권지도 체제에서 1인 지배체제로 가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중국 관부인 중난하이(中南海)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 정치국 상임위원들이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신은 전했다.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의 정치 혼란을 타파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대 조류에 순응하고 민심의 지지를 받는 신성한 이미지의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시 주석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시 주석이 최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것은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 리 총리가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개혁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시 주석은 당과 국가, 군(軍)에 이어 총리 영역이던 '경제권력'까지 장악하면서 '1인 권력 체제'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전면사회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 '인터넷영도소조' 등 중요 소조의 조장을 모두 맡고 있으며,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직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외무성, 고노담화 검증보고서 인터넷 게재

국제 비판 맞서 입장 전파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일 발표한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의 영문판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외무성은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한 당일인 지난 20일 일본어판과 함께 영문판 검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영문 보고서를 올린 것은 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국제사회의 대일 비판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파하고, 나름의 해결 노력을 홍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담화 발표 당일 영문판 검증 보고서를 공개한 점으로 미루 미국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보고서 내용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日 '고노 담화' 흔들기

美전문가들 잇단 비판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 시도를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소장인 민디 코틀러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결과(고노담화)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반항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며 "아베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학적인 전후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평화헌법과 국제기준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틀러 연구원은 이어 "아베 정권은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며 "기이하게도 일본은 중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이번 검증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데 있다"며 "특히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협상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뼈아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日,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

22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역 인근에서 10대와 20대가 주축이 된 학생·노동자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수상태 깬 'F1' 슈마허 "평생 지체장애 안고 살 것"

지난해 12월 스키사고로

6개월 만에 의식 깨어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포몰러(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5·독일)가 평생 지체장애를 안고 살 것이라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스위스의 저명 신경과 전문의인 에리히 리터러 박사는 최근 슈마허의 상태에 대해 "슈마허는 평생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슈마허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

선의 재활 결과는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도움 없이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거나, 6개월 이내에 전기 휠체어를 스스로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2년까지 F1 공식 주치의의 맡은 개리 하트슈타인 박사도 슈마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의식만 겨우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계에선 장기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뒤 신체·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슈마허는 지난해 12월 스키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16일 6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여자의 밸런스 루틴으로 잡으세요!

비싼 일상속 간편한 밸런스
사람 따뜻하게 하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바다위 섬에서 자란 신안꾸지뽕 차

100티백 섬 꾸지뽕차 출시!!

- 신안군 행정 섬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신안꾸지뽕 100%
- 몸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루틴
- 신안만의 특수공법으로 꾸지뽕잎을 발효시켜 뒤어서 만든 꾸지뽕차

神木에 氣를 담은

꾸지뽕

유기농 재배작물!
최고의 경제수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꾸지뽕나무

꾸지뽕 관련 제품 대리점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배방법 용이, 귀농 귀촌 농가 추천 작목, 재배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신안꾸지뽕농업법인(주) | 1899-3688 | www.bbong88.co.kr

직장인들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거기에 기름진 식단과 운동부족까지 이제 신안꾸지뽕차로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꾸지뽕 성분중 가바, 루틴 성분이 녹차의 **46배, 68배**

- **가바(GABA) 성분이란?**
포유류의 뇌속에 존재하는 특이한 아미노산으로 인체에서 가려워, 사교력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골다공증 제거와 당뇨병 개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루틴(Rutin) 성분이란?**
일종의 폴리페놀로 유도체로서 모세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맥경화, 노출혈 같은 순환기 계통을 강화시키고 노화방지, 당뇨, 비만, 이드피 피부염, 염증치러(세안성질환) 등 신진대사를 조절해주어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신안자연연구소
재분연구

전라남도
신안자연연구소

(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협업

JBF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신안군수 생산보증

100%
신안꾸지뽕차

GSB
Governor of Jeollanam